

루스 오제키, 서구 선(禪)문학 작가로 주목

2년 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알려진 맨부커상(Man Booker Prize)을 수상했던 소설가 루스 오제키(Ruth Ozeki)의 문학적 배경이 '선(禪)사상'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BC News〉는 "오제키는 선사상으로 엮여낸 스토리텔링으로 동시대를 일깨우고 있는 작가"라며 "그가 '포틀랜드(Portland) 문학·예술계'의 후원으로 매주 진행하고 있는 대중 강연장의 모습은 마치 선사의 집전으로 진행되는 대중법회와도 같다"고 전했다.

〈ABC News〉에 따르면, 지난 10일 포틀랜드 그랜드 알린 슈나이저(Grand Arlene Schnitzer) 컨서트홀에서 열린 '오제키 작가 초청 강연회'에는 2300여 명의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오제키 작가는 "하루에 64억 9만 9980년의 순간이 있고, 우리는 한 순간에 손가락을 한번정도 재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도겐 스님의 선구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며, "이 선구에서 나는 '손에 대한 스님의 수사적 속임수'를 생각한다"며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순간을 헤아리는 것은 물을 한 움큼 쥐는 것과 같다"고 전제하며 오제키 작가는 "도겐 스님은 이 선구를 통해 사람들이 한순간 내려놓고, 맹목적인 자세로 내달리며 하루를 보내는 자신의 매 순간을 돌이켜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ABC News〉에 따르면, 오제키 작가의 사상적 배경에는 도겐(Dogen, 1200~1253, 일본) 스님이 있다. 일본 조동종의 종조인 도겐 스님은 1227년 송나라에 들어가 중국 조동종의 장엄여정의 법을 이어 목조선을 계승하였고, 1129년 귀국하여 일본에 조동종을 전파했다.



2013년 맨부커상(Man Booker Prize)을 수상한 루스 오제키(사진 왼쪽) 작가는 문단에서 '선(禪)문학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 인근 섬에서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는 그는 최근에는 포틀랜드 문학·예술계 후원으로 매주 포틀랜드를 방문, 대중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서구 비평가들의 호평 쏟아져 작품에 선사상 담은 스토리텔링 전개 독자들과 만날 때 마다 명상 알려

오제키 작가는 "도겐 스님의 선구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탁월한 식견에 항상 감탄하고 있다"며 "아무리 '느림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시간은 항상 충분하다는 게 스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BC News〉는 "오제키 작가가 독자들에게 펼친 선사상은 자신의 영적이고 창조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제키 작가는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코네티컷에서 자랐다. 그가 가지고 있는 추억 중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낯선 기억은 3살 무렵 처음 만

난 외조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ABC News〉와의 인터뷰에서 "3살때 기인 내가 조부모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을 때, 두 분이 명상을 하고 있었다"는 기억을 더듬은 오제키 작가는 "그 전까지 나는 어른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조부모가 내 눈높이에 눈을 맞추며 명상을 하고 있었다"며 "선불교와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스미스대학(Smith College)을 졸업한 오제키 작가가 스스럼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나라여자대학(Nara Women's University)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하며, 노(Noh) 드라마에 푹 빠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오제키 작가가 교토에서 뉴욕을 등지를 옮긴 것은 1985년이다. 이곳에서 영화 제작사의 소품·세트 담당자로 시작해 1990년대부터 대본 작가로 나섰고, 자서전적 영화 〈Halving the Bones〉라는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오제키 작가는 초기 작품인 〈My Year of Meats〉(1998), 〈All Over Creation〉(2003) 등을 통해 미국의 반(反)환경적인 식품제조 방식의 위험성을 알렸다. 그리고 그는 선사상을 기본 가치로 삼은 작품 〈A Tale For The Time Being〉(2013)을 내놓으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출간된 해에 '맨부커(Man Booker)' 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간의 이목을 잡았다. 오제키 작가는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 인근 작은 섬에 살고 있다.

〈ABC News〉는 비평가의 말을 빌려, "오제키 작가의 작품은 한마디로 선의 문학"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작가에게 문학적 기법이란 독자의 상상력 안에서 시공의 흔들어 새로운 관점, 즉 부처님 가르침을 갖도록 유도하는 도구"라고 정한 〈ABC News〉는 "불교적 가르침이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것도 없으며,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것'으로, 오제키 작가는 이를 문학적 기법을 통해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오제키 작가의 작품을 접한 독자들은 텍스트를 읽는 동안은 탁월한 명상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명상을 배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그가 2010년 수계를 받은 법사이고, 지난해 가을에는 밴쿠버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은사 스님과 함께 두 달간 집중명상을 실시했다는 점으로 비평가의 평가에 힘을 실을 수 있다.

현재 '포틀랜드 문학·예술계'의 후원으로 매주 '소설 글쓰기', '명상과 상상' 등을 주제로 대중강연을 하고 있는 오제키 작가는 매 강연의 마무리에는 명상을 소개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원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돼지 '화제'

농장탈출한 돼지 사원 앞에서 절해...스님이 불경 읊어줘



중국의 한 사원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의 돼지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 사원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의 돼지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전강만보(錢江晚報)는 2월 25일(현지시간) "전날 절강성 운주시의 한 사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사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등 화제가 됐다"고 소개했다.

당시 사진은 중국의 SNS 웨이보 등에 게재되며 온라인상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이 돼지가 무릎을 꿇고 얼마 후, 사원의 여러 승려들은 돼지 앞에서 불경을 읊어줬다. 그러자 돼지는 일어나 유유히 떠났다. 이에 대해 한 중국 양돈업계 관계자는

"돼지가 절을 하는 것과 같은 동작을 취하는 것이 결코 신기한 일은 아니다"라며 "드물지만 가끔 볼 수 있는 일"이라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돼지가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비타민E가 부족하면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돼지는 사원 근처의 현지 농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기사를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은 "돼지가 감지 능력이 뛰어나 부처님을 감지할 수 있었다" "평소 비타민 섭취가 부족했던 돼지가 바닥에 우연히 무릎을 꿇은 것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나는 기사 oasis1983@hyunbul.com

인도서 '中 반대' 시위 티베트인 100명 체포

3월 5일 티베트 여성 분신자살... 올해 들어 처음

인도에 사는 티베트인들이 3월 10일 '반(反) 중국 항쟁일' 56주년을 맞아 뉴델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다가 1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도 현지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티베트인들은 대사관 앞에서 '티베트 해방' 등을 외치며 '인간띠 잇기'를 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 자치구)에서는 1959년 3월 10일 중국의 점령에 반대하는 '폭동'이 발생해 티베트 임시 정부 추산 8만여 명의 사망자가 났다.

이후 티베트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임시 정부 관리들과 추종자 1천여 명이 이끌고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했고, 세계 각지의 티베트인들은 이후 매년 3월 10일을 '반 중국 항쟁일'로 기념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5일 티베트에서는 한 여성이 중국 통치에 항의해 분신자살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티베트족 여성 노르추크(47)가 중국의 탄압 통치에 항의해 분신자살 했다"며 "이 여성은 6

일, 은가바 군 트로추크 마을에서 분신 자살했으며, 가족이 장례식을 치르기도 전에 당국이 시신을 거둬가서 화장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한 티베트인 분신 사건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 12월에는 1주일에 3명이 분신 자살하기도 했다.

현지 소식통은 당시 분신한 3명 가운데 한 명은 칼상 예시란 이름의 승려였으며, 중국 쓰촨 성의 사원 밖에 있는 경비 초소에서 티베트 독립과 달라이 라마의 귀환을 소리 높여 촉구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전했다.

이 승려 또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경찰 당국이 시신을 거둬갔다.

당시 중국 경찰이 분신 자살한 승려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고, 가족에게 시신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현지에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승려가 숨진 뒤에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34살 남성과 20살 여성이 연이어 분신 자살했다.

이나는 기사

美 미시간대 '상좌부불교 연구과정' 개설

아무에이 비라반 태국 전 부수상, 200만 달러 후원

미국 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이 '상좌부불교 연구과정'을 개설한다.

〈MLive Media〉는 "미시간대학이 태국의 아무에이 비라반(Amnuay Viravan) 전 부수상의 기부금 2백만 달러를 받아, 그 기금으로 '상좌부불교 연구과정'을 개설한다"며 "미국 내에서 상좌부불교 관련 최대 규모의 연구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상좌부불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불교도의 수는 1억 5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살고 있다.

미시간대학에 따르면 '상좌부 연구과정'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문학·과학·예술대학' 산하 '아시아 언어·문화' 학과 부설 과정으로 개설될 방침이다. '상좌부 연구과정'에 참여할 교수진은 세계 각국의 관련 학계를 통해 모색하고 있다.

〈MLive Media〉는 미시간대학의 말을 인용, "이번 연구과정의 성과물들은 세계 각국의 불교학자들과 자유롭게 공유될 것"



태국 전 부수상인 아무에이 비라반은 상좌부불교 연구과정이 개설되는 미국 미시간대에 2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라며 "이는 상좌부불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주목했다.

미시간대학의 '상좌부불교 연구과정'의 단조를 마친 태국의 아무에이 비라반(Amnuay Viravan) 전 부수상은 1950년대에 미시간대학에서 유학, 두개의 석사학위와 1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태국 내 미시간대학 동문회를 이끌고 있다.

아무에이 비라반 전 부수상은 "내 인생에서 성공은 미시간대학의 배움이 바탕이 되었다"며 "상좌부불교의 연구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모교의 학풍도 진작하는 데 일조한다는 게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삼 단독입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삼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촛대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 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삼 TEL 02)2004-8216